

보도	2025.7.23.(수) 조간	배포	2025.7.22.(화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전자금융검사국 검사기획상시팀 검사2팀	책임자	국 장 심은섭 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 손인호 (02-3145-7154)
			팀 장 손정환 (02-3145-7156)

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
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.

-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 성과 -

I 최근 PG*업권 동향

* 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 : Payment Gateway)

-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·마약,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,
-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, 사기·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

※ 민생범죄의 폐해

- (불법 도박)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이 집중적인 피해 대상
- (대출 사기) 대출 취급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야기
- (투자 사기) 사기 등에 취약한 고령층, 서민층이 주요 범죄대상
- (정산금유용)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맹점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

▣ 민생범죄는 특히 취약계층, 소상공인 등이 주요 피해 대상으로 철저한 근절이 필요

⇒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* 및 현장 점검·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, PG사의 불건전·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임

※ 참고 : 「금감원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」 운영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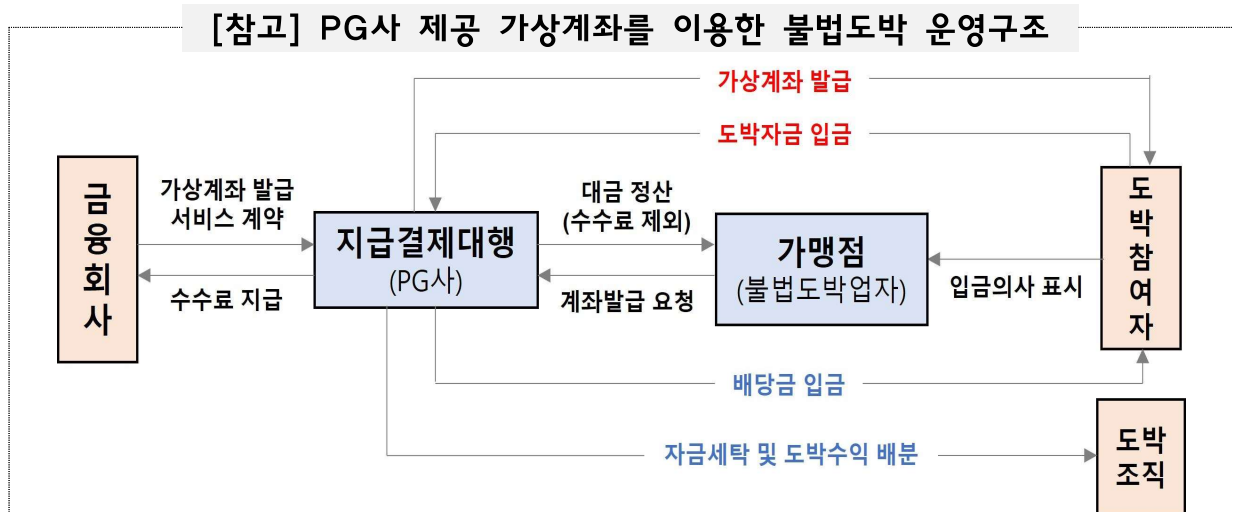
- ◆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·분석하여 이상 가맹점을 적출하는 상시감시 시스템을 '25.상반기 구축·운영중
- 그간 적발된 불건전 거래패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, 거래 비중 변화 등 이상징후*를 포착하여 요주의 회사를 선정하고 밀착감시 실시
- * 例) 계좌수·거래량 변동, 결제수단별 거래비중의 변화, 거래 중단 및 재개 사유 분석 등
- ☞ '25.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, 이 중 불법 연루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

Ⅱ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 및 대응성과

1.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

☞ (사례 ①) 일반 쇼핑몰 등으로 가장한 **보이스피싱 및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**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범죄자금 이동을 위한 **가상계좌**를 제공

- (주요 내용) 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하고,
 - 가상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 등을 범죄조직의 지정 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하였음
 - ※ 불법도박업자는 유통업체, 쇼핑몰 등 정상이맹점으로 위장하여 P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도박자금을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둔갑시켜 PG사가 제공하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
 - 또한, A社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·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신고 발생시 유령법인을 신고하여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임을 확인하였음



- (대응 결과) 금감원은 **불법도박 혐의** 등을 적발하여 경찰에 A社와 불법의심 위장가맹점 등을 **수사의뢰**하였고, 검·경 합동수사를 통해 검찰은 A社의 대표이사 등을 **구속 기소**하였음

2. 대출 사기

☞ (사례 ②) 대표나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**허위 카드 매출채권**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**연계대출**을 받은후 **대출금**을 **유용**

- **(주요 내용)** PG사인 B社の 대표이사는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(가공회사)를 만들고 同 가공회사 및 지인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·조작하고
 - 가공·조작한 카드매출을 담보로 하여 온라인투자연계업체(P2P업체)에 연계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후 동 대출금을 유용하였음
- **(대응 결과)** 금감원은 B社 대표이사의 **사기 혐의** 등에 대해 검찰에 **수사의뢰**하였고, 검찰은 특가법상 **사기** 및 **횡령 혐의**로 대표이사에 대하여 **징역 30년**과 **추징금 408억원**을 **구형**하였음

3. 투자 사기

☞ (사례 ③) 온라인에서 **고수익**을 **미끼**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모집하여 **투자금 편취**를 위한 **가상계좌**를 제공

- **(주요 내용)** 불법업자는 유통업체, 쇼핑몰 등 정상업체로 위장하여 PG사인 C社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, 유튜브, SNS 등을 통해 **고수익 상품***을 **미끼**로 하여 투자자를 **가짜 투자사이트**로 유인한 후,
 - * 연금형 펀드, 배당형 저축펀드 등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여 노후자금을 투자하려는 고령층의 피해가 집중 발생
 - **피해자**(투자자)들이 가입한 **가짜 상품**에 대한 투자금을 **C社로부터 제공받은 가상계좌***로 입금토록 한 후 동 자금을 편취하였음
 - * 피해자들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(대포통장)임을 의심하지만,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요구시 경계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이용
 - 또한, 정소가맹점 위장을 위해 구축된 불법업자의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발한 IT업체가 C社の 가상계좌 시스템도 운영하는 등 PG사(C社)의 투자사기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였음
- **(대응 결과)** 금감원은 C社の **사기 연루 상황**을 확인하고 **경찰**에 **수사 참고사항**으로 통보하였음

4. 가맹점 정산대금 유용

☞ (사례 ④) 임직원 등이 가맹점 정산대금을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법인 계좌로부터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

- (주요 내용) PG사인 D社の 가상계좌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부 임직원 등이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금 일부를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본인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고
 - 유용한 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
- (대응 결과) 금감원은 D社 임직원 등의 횡령 혐의 등을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, 현재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

Ⅲ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·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

① 불건전·불법 영업행위 적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

-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음

② PG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및 테마점검 실시

-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·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,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

③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제도개선 협력

- 불법도박,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,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*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음

*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